

완도교육지원청, 새학기 대비하여 학교폭력예방에 앞장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장필)은 지난 19일 새학기를 대비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완도 관내 초·중·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전달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Zoom을 활용한 비대면 연수로 실시

관내 초·중·고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비대면 전달 연수 실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시스템 이용 등 진행

되었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시스템(공감마당) 이용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민정기 학교지원센터장은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역량이 강화되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현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치유로 접근하는

교육 방향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관련 도움이 필요할 때 힘껏 돕겠다”고 덧붙였다. 연수 전달 강사인 정○○ 교사는

“공감마당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서장필 교육장은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 학교폭력 논란이 대두되며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학교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사안 발생 시 관련

학생들의 일상회복과 치유를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을 항상 염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개발과 여러 방식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이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에 전문성을 함양하여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광주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위한 대학생 보조강사제 운영

학습보조 및 상담 활동 등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격차 해소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22일~6월4일 대학생 보조강사제를 운영한다.

지난 2013년부터 9년째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보조강사제는 광주교대 3학년 재학생들이 초등학교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의 학습보조 및 상담 활동 등을 지원하는 단위학교 기

초학력 보장 맞춤형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326명의 대학생 보조강사가 주 2회 4시간 동안 해당 초등학교(43교 150학급)로 출근해 학생들을 지원한다. 예비교사인 광주교대 3학년 재학생들은 관내 초등학교에 보조강사로 참여해 담임교사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활동을 지원한다. 보조강사는 기초학력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취동기를 북돋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교대 3학년 이성민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격차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많이 접했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보조강사제에 지원해 문흥중앙초에서 보조강사로 활동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기초학력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부진 요인을 파악하고, 담임 선생님과 협력해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김수강 과장은 “대학생 보조강사제를 통해 예비교사인 광주교대 3학년 재학생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학교에서는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진도 금성초, ‘삼나무 숲 4계절 생태 교실’ 운영

특색 교육활동 ‘저탄소 녹색성장교육’ 실시



진도 금성초등학교(교장 김덕용)는 ‘삼나무 숲 4계절 생태 교실’을 학교 특색 교육활동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4계절 생태를 직접 보고 느끼며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월 17일과 18일은 4계절 생태교실 중 첫 번째인 봄 프로젝트로 ‘쑥 캐기

와 ‘쑥 인절미 만들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금성초 전교생과 교직원들은 봄의 따스한 햇살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 주변의 쑥을 직접 캐다. 학생들은 막 채취한 쑥의 향을 맡고 생명이 넘치는 흙을 만지며 봄을 오감으로 느끼는 쑥 캐기 활동을

진행했다.

6학년 ***학생은 “매일 학교 가는 길에 있었던 풀이 쑥이라는 것도 잘 몰랐는데 알게 되어서 신기하고 바로 쑥의 향은 정말 봄이 온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말했다.

봄을 가득 담은 쑥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떡 반죽으로 쑥 인절미를 만들어서 먹는 시간도 가졌다. 쑥인절미 만들기로 학생들에게 봄의 맛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하게 봄을 느끼는 ‘봄 프로젝트’가 되었다.

깎아내려지는 듯한 압박의 절경이 아름다운 금골산 아래 위치한 금성초등학교에는 삼나무 숲, 학교 뒷밭, 야생화 화단(조성 예정) 등이 있어 사계절의 변화와 생태환경을 배우고 느끼기에 최적의 교육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야생화 키우기, 채소 심기, 삼나무 숲 오감놀이 등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며 학생들과 지역민, 교직원 모두는 다가올 계절에도 ‘삼나무 숲 4계절 생태 교실’의 다양한 활동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진도=조성용기자

곡성군, 역사 웹툰으로 재밌게 배운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알고보면 재미있는 곡성역사’ 웹툰 연재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이 곡성의 역사를 웹툰으로 제작했다.

재단은 ‘알고보면 재미있는 곡성역사’ (이하 ‘알재곡’)라는 웹툰을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곡성꿈놀자 공식블로그에 연재한다. 알재곡 제작에는 네이버 웹툰에 ‘호곡’이라는 작품을 연재했던 김대훈 작가가 참여했다. 총 27편으로 제작되며 22일 현재 ‘곡성 출신 신승겸 장군 고려 태조 왕건을 살린 방법은?’라는 제1화가 올라와있다. 이번 웹툰은 지난해에 만든 초등학교 5학년 수업 보조자료를 가독성을

높이고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툰화한 것이다. 초등학교 수업에 활용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지역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성인들도 웹툰을 보고 나서 곡성의 역사와 관련된 다른 책자를 본다면 한층 쉽고 깊게 알게 배울 수 있다. 웹툰 연재가 마무리되면 책으로도 출판될 예정이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지역 역사에 대한 콘텐츠가 다양하게 확대돼야 한다. 앞으로 웹툰의 주인공과



공간적 배경을 지역의 사람들과 마을로 확대해 곡성역사 시리즈를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전남교육청, 교육지원청 인사 담당 공무원 협의회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2일 청사2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 담당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청렴·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이번 협의회는 변화하는 인사제도 설명을 통한 인사행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사제도 관

련 의견수렴으로 합리적인 인사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 김춘호 행정국장 특강 △ 2021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실무 중심 전달 사항 안내 △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채용 관련 안내 △ 인사제도 관련 의견 수렴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인사

운영 기본 방향 뿐 아니라 담당자들이 놓치지 쉬운 사례 위주의 실무 관련 팀을 제공함으로써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교육지원청 인사 담당 공무원들은 청렴 다짐 7계명을 서약하며 “모두가 신뢰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 운영을 추진 할 것”을 다짐했다. 김경환기자

